

시대 이끈 캐딜락 플래그십... 전기차시장 'SUV 제왕' 도전

올해로 브랜드 설립 120주년
자동차 대한 '세계의 표준' 제시
셀렉트 등 전기차 출시 본격화

올해 브랜드 설립 120주년을 맞은 캐딜락이 국내 수입 플래그십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000cc 이상의 고성능 엔진에 각종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한 1억원 이상의 플래그십 SUV는 브랜드 역량을 집중하는 상징적인 모델인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7월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캐딜락은 7월까지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 총 310대를 판매, 1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입차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BMW, 벤츠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판매량 대비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캐딜락이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출시된 5세대 에스컬레이드의 인기 덕분이다. 지난해 공식 출시된 5세대 에스컬레이드는 출시와 동시에 압도적인 사이즈와 존재감, 첨단 테크놀러지가 대거 적용돼 이른바 'SUV의 제왕'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



캐딜락 플리트우드



캐딜락 2세대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5세대 에스컬레이드

고 있는 캐딜락의 대표 SUV 모델이다.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에스컬레이드는 출시 이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캐딜락의 실적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에스컬레이드가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로 자리매김한 것은 2001년 2세대 에스컬레이드가 출시된 이후다. 플래그십 SUV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캐딜락은 2001년, 당대 최첨단 테크놀러지와 함께 압도적인 사이즈가 돋보이게 만든 수직형 디자인을 적용한 2세대 에스컬레이드를 출시하며 독보적인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에스컬레이드는 전 세대에 걸쳐 당대 SUV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동시에 '풍요로움'으로 대표되는 '아메리칸 럭셔리' 문화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며 캐딜락의 명실

공히 '플래그십'으로 인정받고 있다.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의 120년 브랜드 역사에서 수많은 '플래그십 모델' 중 하나다. 캐딜락은 1902년 설립된 이후 오랜 역사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리드하는 기술력을 통해 자동차 역사에 남을 만한 '플래그십' 모델을 선보여 왔다. 특히 캐딜락 설립 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세계 최초 자동차 부품 표준화에 성공하고 세계 최초 전자식 섀프-스타터를 개발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1908년과 1912년, 영국 왕실 자동차 클럽으로부터 드와트로피를 수상했다. 이를 통해 캐딜락은 자동차에 대한 '세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캐딜락은 ▲1914년, 세계 최초 V8 엔진 양산 시작 ▲1930년, 세계 최

초 V16 엔진 개발 ▲1938년, 미국 최초 자동차 선루프 상용화 ▲1941년, 4단 하이드라-매틱 자동 변속기 출시 ▲1968년, 미국 최초 쿨링 시스템 장착 ▲1998년, 업계 최초 어댑티브 시팅 적용 등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증명했다.

캐딜락의 다양한 '세계 최초' 기술은 압도적인 디자인을 통해 '플래그십 모델'로 세상에 알려졌다. 1927년,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할리 얼이 디자인한 첫 번째 모델 라살을 시작으로 로켓의 꼬리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20세기 초 중반 자동차 디자인을 선도한 '테일 핀' 디자인의 대표 모델 1959 엘도라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를 의전하며 첫 번째 진정한 퍼

스널-럭셔리 차량으로 알려진 1967 플리트우드 엘도라도 등 캐딜락 '플래그십 모델'의 역사는 세계 자동차 역사와 함께 기록되며 캐딜락이 '아메리칸 럭셔리'의 대표 브랜드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캐딜락은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서도 '플래그십'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브랜드 최초 전기차 '리릭'을 시작으로 캐딜락의 120년 헤리티지와 그 간 쌓아온 럭셔리에 대한 모든 경험을 집약한 하이퍼 럭셔리 EV 셀렉트 스틱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플래그십'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글로벌 대표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방산' 어벤져스 집결... K2·K9 등 미래 무기체계 선봬

제30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현대로템 K2전차 홍보·영업 집중
한화디펜스 K9자주포 2차수출 논의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에서 열리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K방산'의 기술 경쟁력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제 30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MSPO는 폴란드에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방산 전시회로 폴란드 국방부와 국영 방산그룹인 'PGZ'가 공식 후원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전차 수출 계



폴란드 MSPO 2022 전시회 한화 통합부스 전경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 참가한 현대로템의 부스 전경.

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전시회인 만큼 K2전차 수출 사업 관련 대외 홍보와 영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폴란드 등 주요 K2 전차 수출 추진국과 주요 방산업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의 미래 기술력을 적극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정

과 K2 전차 긴급소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등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K2 전차 1차 인도분에 대한 실행 계약까지 마무리하며 사상 첫 K2 전차 해외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또 현대로템과 PGZ는 행사 기간 전시회장 실내에 마련된 PGZ 부스에서 미래무기체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

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전시회 기간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K2 전차 모형과 차륜형 장갑차 모형, 차세대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모형이 함께 전시됐다.

한화디펜스도 이번 전시회에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비호-II 차륜

형 대공방어체계 등 지상 무기체계를 전시한다. 이와 함께 4륜차가 생산하는 정밀유도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탄약류 등도 선보여 한화그룹 통합 방산 솔루션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지난달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155mm 탄약 등을 패키지 수출하는 1차 실행계약을 맺은 뒤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2차 실행계약 체결을 위한 양측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는 전시회 기간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사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및 후속 군수지원 방안을 비롯해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와 다연장로켓 공동개발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T-현대차그룹, 7500억 지분교환... 모빌리티 파트너십 강화

'커넥티비티' 분야 중점 협력

KT가 현대자동차그룹과 7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다.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서다.

KT는 7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차그룹과의 향후 협력에 대한 실행력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분 교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T와 현대차그룹은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약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약 3003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한다.

양 측은 자기주식 교환 거래는 상호 주주가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사업 제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업 실행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KT와 현대차그룹 모두 지분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KT와 현대차그룹은 또 MECA 실현의 기반인 '커넥티비티' 분야에서 차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커넥티비티는 MECA의 핵심 요소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통신망이 뒷받

침되어야 원활한 기술 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유력 통신사와의 제휴 및 지분 교류로 관련 기술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KT는 그간 신한금융, CJ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DIGICO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왔다. KT는 이번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DIGICO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채윤정 기자 echo@

전기차용 부품 경쟁력 입증

LG이노텍이 올해에도 우수한 품질로 미국 GM에 감사 인사를 받았다.

LG이노텍은 미국 GM에서 '2021 품질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이후 5년 연속이다.

'품질우수상'은 GM이 매년 품질결함 '제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협력사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완성차에 장착되는 부품을 완벽한 품질로 공급해야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GM은 기준이 까다로워서 품질우수상 의미

가 크다는 설명이다.

LG이노텍은 2010년부터 GM에 DC-DC 컨버터와 전기차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EVCC) 등 전기차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올해에도 전장부품사업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전장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